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업생산기반 정비 112억 투입

윤 이도현기자 | 승인 2025.07.06 11:38

하반기 본격 추진...노후 시설 보수·영농환경 개선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20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당진시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 55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하반기 공사에 투입되며, 올해 1월에 확보한 본예산 57억 원 중 약 80%를 상반기에 이미 집행한 상태다.

2025년 전체 확보 예산은 총 112억 원으로, 유지관리 사업비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 교부액이다. 이를 통해 당진 관내 노후·취약 농업시설을 보수하고 영농 불편을 해소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성환 당진시장장은 노후된 농업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 지역은 1970년대 간척사업 이후 준공된 시설들이 40년 이상 경과한 경우가 많아 보수·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매년 1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지원해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예산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해 영농환경 개선과 농경지 재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주은규 지사장은 "시의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시급한 시설을 빠르게 보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앞으로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와 배수개선 사업에 다수의 신규 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저작권자© 전국매일신문-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도현기자